

대구주보

친교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연중 제25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3. 09. 24. (가해) 제2394호

소리주보QR코드



2023 효자성당 + Bernhard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4대리구 효자성당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유강길10번길 34-25 문의 | 054)275-1134

대장, 연일성당에서 분가하여 2007년 9월 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당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2012년 11월 18일 새성전을 축성하였고, 지난 2021년 7월에는 착한목자 정원과 성모당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제 1 독 서 이사 55,6-9

화 답 송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 독 서 필리 1,20c-24,27ㄱ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마태 20,1-16

영성체송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를 선택할 자유



가톨릭근로사회관 관장 | 이관홍 바오로 신부

가끔씩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동남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다시 고국을 떠나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 등으로 일을 하러 떠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또 가족들과 떨어져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자신들의 고국에서는 살기가 힘들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또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는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빈곤, 박해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주할지 또는 머무르지를 선택할 자유’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주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고, 모국에서 평화롭고 품위 있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을 우리 여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은 물론 자신들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서 한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주민과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과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따듯이 맞이하는 것, 곧 ‘환대’는 덕행 중의 하나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이주민과 난민들을 우리 삶의 ‘동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과 연민의 시선으로 환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봅시다. **✠**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자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주의 물결은 복잡적이고 다양한 현상의 표현으로,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러 이주 단계에 대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본국을 떠나는 선택에 언제나 지표가 되어야 할 자유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주는 언제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심지어 오늘날조차 그렇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더 단순하게는 모국에서 품위 있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떠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제 이주를 일으키는 가장 눈에 띄는 원인은 박해, 전쟁, 기상 현상, 극심한 빈곤 등입니다. 이주민들은 가난하기에, 또는 두려움이나 절망 때문에 피신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여 강제 이주를 종식하려면 각자 지닌 책임에 따라 모든 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 어떤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묻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군비 경쟁, 경제적 식민주의, 다른 이들의 자원 약탈, 우리 공동의 집 훼손을 멈추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주가 참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되게 하려면, 모두가 공동선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본권을 존중받으며 온전한 인간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그 선택에 대하여 잘 알고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위험한 환상에 빠지거나 파렴치한 인신 매매범들의 희생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이주로 내몰리지 않을 권리를, 곧 모국에서 평화롭고 품위 있게 살아갈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려는 각국 그리고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보호는 국경을 뛰어넘는 공동선에 대한 모든 나라의 공동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국이든 타국이든 우리가 미래를 이루어갈 자리로 선택한 어디에서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며 언제나 모든 이를 환영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고 통합할 준비가 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시작한 이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가장 힘없는 이들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로서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야 할, 우리 여정의 특별한 동반자를 알아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야만 멀리 갈 수 있고 우리 여정의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밥이 되어 주세요!

사수성당 | 이정은 영덕 막달레나


정신없이 지내온 이십 대 청춘이 끝나갈 무렵, 밴드를 함께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버스킹 공연도 다니며 음악을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었고, 또 당시 대구 생활성가계의 대부(?)격이셨던 선생님의 제안인지라 흔쾌히 따라나섰습니다. 밴드 음악을 한다니 내심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를 제외하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인지 7080음악이 주류였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음악에서마저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파트별로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이라 대부분 생소한 노래였지만 아는 노래를 밴드 연주에 맞춰 부를 땐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습니다.

중년의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이 밴드의 이름은 ‘밥밴드’였습니다. 처음엔 ‘밥? 먹는 밥? 촌스럽게 밥이 뭐야?’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밥이 되어 주세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끼니가 걱정한 아이들, 소위 말하는 결식아동들의 밥을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포부로 시작한 ‘밥밴드’ 취지가 좋고 뜻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주 연습을 하고 드디어 ‘밥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둔 주말,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관객이 얼마나 될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다행히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객석을 메워 주셨고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 도중 단장님의 눈물 섞인 멘트 탓인지 첫 공연의 수익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밥밴드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밥콘서트를 통해 가난한 동네의 공부방 아이들에게 매달 용돈을 지원하고, 결연을 맺은 아이들과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으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힘든 상황에 놓인 환아들을 위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후원이 되어야 한다는 밥밴드의 근본적인 신념이 결성된 지 13년이나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도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 절실함은 더욱 와닿았고 제가 가진 달란트가 아이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밥 먹었니?’ ‘밥 한 번 먹자!’ ‘밥 잘 챙겨 먹어~!’ ‘밥값은 해야지!’

밥은 인정을 나누는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교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食口)라고 하듯 성당에 모여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 신자들 역시 식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밥이 되어 줄 때 진정한 친교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니 밥이야?’라고 투정 부리기보다 ‘난 니 밥이잖아!’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기대하며 오늘도 밥밴드 연습실로 향합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대구주보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4년

성 유스티노 신학교가 첫 신입생을 받다

9월 18일 금요일

미국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송금이 가능하기만 하면 곧 신학교 장학금을 보내겠다고 한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9월 19일 토요일

12명의 신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된 것을 모르고 처음 정한 날짜인 오늘 도착했다.

9월 22일 화요일

신학교 석공일과 역에서 대충 다듬어진 돌 제대를 다듬는 일이 시작되었다.

9월 23일 수요일

제대 군인에 관한 영사의 회람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투르뇌 신부에게만 적용이 된다. 나는 그가 대구에서 의사 진찰을 받도록 요청했다.

9월 29일 화요일

신학교 신부들이 학생을 데리고 왕복 80리가 넘는 북쪽의 한 절로 갔다. 투르뇌 신부가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그가 심한 근사이고, 심장이 비대해졌으며, 폐병에 걸렸음을 발견했다.

10월 1일 목요일

신학교 신부들이 신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요일과 파공참례(罷工瞻禮) 때는 주교관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것이고, 커피 타임이 있을 때는 커피를 마시러 올 것이다. 보두네 신부는 그의 성당을 위해 내가 기증한 400원을 도둑맞았다.

10월 2일 금요일

주교관의 헛간을 짓기 위한 계약, 벽돌을 계산에 넣지 않고 700원이다.

10월 3일 토요일

성 유스티노 신학교가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았는데, 학생은 57명이다.

10월 4일 일요일

나는 8시 30분에 신학교와 성당을 강복했고, 2시 30분에 14처를 세웠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순교자 현양 사진글 공모전

공모주제 순교 영성과의 친교 **참가대상** 3인 이상의 공동체
공모기간 2023. 10. 31.(화) **접수방법** dp21lightzine@dgca.kr(연락처 기재 필수)
공모방법 - 교구 내 성지를 방문해서 촬영
 - 주제는 「순교 영성과의 친교」, 촬영 형태 및 대상은 자유
문의사항 월간 <빛> 편집부 255-8405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알림을 참조바랍니다.

교구 新청사 건립 기공식

2023. 9. 26. 오후 2시 | 교구청 내 신청사 부지 (구, 제2주차장)



(신청사 조감도 / 2025년 5월 준공예정)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교구청사가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新청사가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복음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천주교 대구대교구 신청사 건축본부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올해 창조시기(9.1~10.4)에는 심장박동에 머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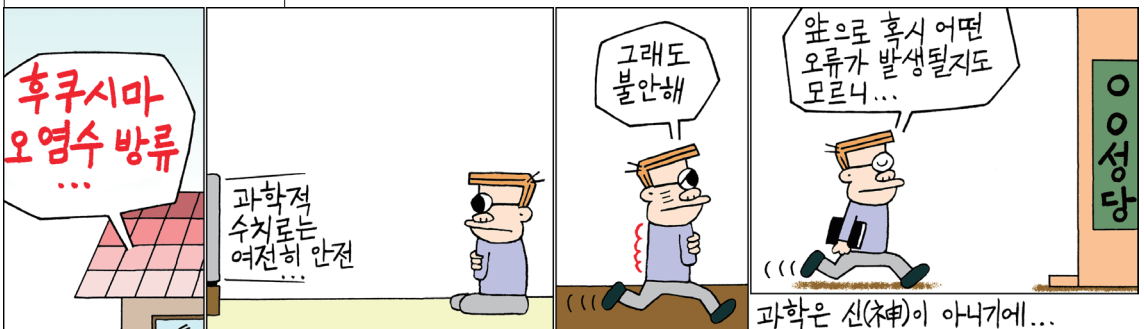
하느님의 심장박동 머물기

- 조화롭게 평화 가운데 환경과 기후 불의에 맞서라는 하느님 부르심에 머물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믿고는 싶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과학은 신(神)이 아니기에...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9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25일(월) 11:00 범어성당		9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0.1(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10.7(토) 14:00~10(화) 13:00

장소: 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문의: (010)8353-2323 (문자 문의)

재속 맨발 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첫째 주일 (010)3308-1004

첫째 월요일 (010)4525-2467

넷째 주일 (010)3307-5772

넷째 월요일 (010)8587-7683

대상: 만 19세~만 55세

골롬반 가을 청년 피정

일시: 10.14(토) 10:00~17:00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9세 신자 / 1만원

신청: bit.ly/ColumbanRetreat10

문의: (010)3817-0567

도미니코회 봉쇄수도원 젊은이 피정

문의 및 접수: (010)6561-2906

<http://www.dominicocorea.com>

한국 마리아사제운동 사제 연례 피정

기간: 10.5(목) 17:00~7(토) 9:00

장소: 의정부교구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한국 모든 사제

문의: 손무진 요한 신부

(010)4566-3217

팔로티회 월피정 취소 안내

팔로티회에서 주관하는

하느님 자비의 기도 월피정은

관덕정순교기념관이 휴무인 관계로

10월 3일(화)에는 없습니다.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문의: 320-2120 / (010)7372-007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기타 알림

가톨릭상지대 2024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9.11(월)~10.5(목) 수시 1차

문의: 입학홍보처, (054)851-3021~2

<http://ipsi.csj.ac.kr>

2023년 성령쇄신 전국 대회

일시: 10.14(토) 9:30~17:3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바기스 신부, 조셉 페르난데스

미사: 이병호 주교 / 문의: 한국가톨릭

릭성령쇄신봉사회, (02)777-3211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A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주)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번화센터빌딩 8층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진료문의: 216-7345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정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중점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NAVER 동고동락 결혼정보 검색
동고동락 결혼정보

1:1 밀착관리 매칭 시스템 운영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4번 출구 바로 앞
임영희 (소피아)
010-4535-0100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연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나스(NAS)간호학원
국비지원 | 간호조무사

이형우(미카엘) 구효정(올리아)
1544-8897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역임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24시간 무료검역
비앤비
비뇨의학과 의원
피부과

대표원장 | 전문의 이윤형 (요섭)
삼성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한(가롤로) 신부
1983년 9월 28일

교구 | 대구구 알림

군위묘원 관리비(2,3차분) 납부 안내
매장일로부터 10년 단위로 관리비가 청구됩니다. 2014.1.1. 이전에 장례하신 묘주께서는 미납된 관리비를 확인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에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고, 성묘 후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별자 피정(아디오스)

기간: 11.3(금)~5(일) / 11.18(토)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대상: 가족사별 1년 이상(교구신자)
마감: 10.4(수) / 피정비: 25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호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임정택(미카엘), 김화락(예로니모)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영천성당 은혜의 밤

일시: 10.6(금) 18:00~22:00
장소: 영천성당
주제: 성령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강사: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제5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월) 9:00~17:00
대상: 전종목 신자+ 비신자 1+1



좌측 QR 코드로 신청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3515-7555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529-3898 / (010)3463-5191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기간: 10.11~11.15(매주 수)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등
수강료: 8만원 / 문의: 283-9898

SPC에니어그램 1단계 개강

일시: 10.17(화) 19:00~21:0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내적여정
교육기간: 주1회 2시간, 총 8주
신청: 254-2664 / (010)3228-3330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0.7(토) 14:00
내용: 원석 목주팔찌 만들기
대상: 청년
문의: (010)5639-8071

신앙 안에서 자기돌봄과 내적치유

일시: 10월 초~ 매주 목, 금(선택) / 10주간
10:00~12:00 / 인원: 10명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 CPE센터
교육비: 20만원 / 문의: (010)4996-5508

2023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본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김기산 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대표원장 조영수(다미아노)
이호성(아오스딩) · 이수윤(소피야)
홍정흡(대건안드레아) · 강혜리(스텔라)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차리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달서구 위동로 142 (구)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문사 최준우(미카엘)
난청·이명 문의 010-7225-8849

김정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문사 김정범(대건안드레아) 동산병원 정년퇴임
우울증 | 불안장애(공황전도) | 불면증
청라연덕역 9번 출구에서 동산병원 방향 도보 4분
대구시 중구 달성로 26 | 2F ☎053-253-0600
▶ 동산병원 주차장 이용 가능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정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 · 로션 · 스킨 · 샴푸 · 금잔크림 · 세안비누
롯데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